

#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VITENAM OCEAN SHIPPING(VOSCO)



## Vietnam Ocean Shipping(VOSCO), 신규 선박 구매 및 함대 확장 계획 발표

베트남 해운(Vietnam Ocean Shipping, VOSCO)이 2024년에 38,000DWT 및 64,000DWT 벌크선 2척과 50,000DWT 유조선 1척 등 대략 3척의 선박을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약 1조 9천억 동(미화 7,670만 달러)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베트남 해운이 이 중 40%를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해운은 유조선 2척과 석유/화학 유조선 2척을 신규 임대 계약하는 등 보유 선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20년 가까이 운항한 유조선 다이민(Đại Minh)을 포함한 노후 선박을 폐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해운회사는 지속적인 시장 발전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더 많은 선박을 소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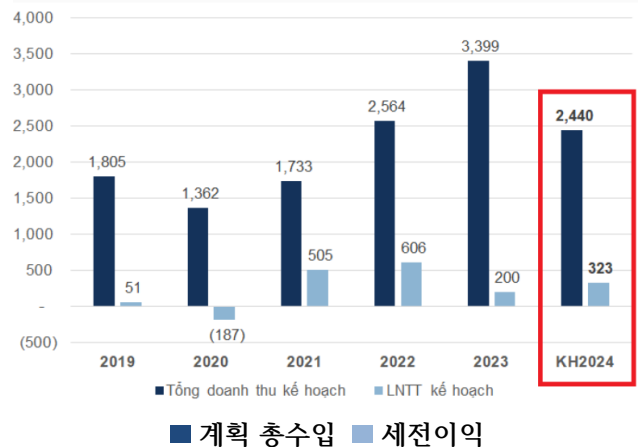
베트남 해운회사의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익과 600억 동 상당의 넵툰 스타 선박 매각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04.5%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말 기준 베트남 해운회사의 총 자산은 연초 대비 1.4% 소폭 증가해 370억 동 증가한 2조 7,151억 동을 기록했다. 그 중 주요 자산은 고정자산인 9,461억 동으로 전체 자산의 34.8%를 차지하였으며 현금 및 단기 금융투자는 8,254억 동으로 전체 자산의 30.4%를 차지했다. 단기채권은 5,154억 동을 기록해 전체 자산의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해운회사의 올해 연간 수익 목표는 전년대비 61.5% 증가한 3,230억 동에 달한다. 한편, 이번 선박 확장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출처: [Bizhub\(링크\)](#), [Baodautu\(링크\)](#)

### Vietnam Ocean Shipping

베트남 해운(Vietnam Ocean Shipping, VOSCO)은 1970년에 설립된 베트남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해상 운송기업으로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베트남에서 해상 운송을 비롯한 유조선 및 컨테이너 선박 운영, 선박 대리점 및 중개 서비스 등 기타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안전 코드(ISPS코드)를 적용한 최초의 베트남 해운 회사로 인정받았으며, 높은 수준의 교량 시뮬레이션실, 엔진 시뮬레이션실, 실습실을 갖춘 선원 훈련 센터를 운영하는 유일한 베트남 해운회사이기도 하다. 베트남 해운은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꾸준히 컨테이너선을 구매하고 운영하며 몸집을 키워나갔고 2010년 “VOS”라는 코드로 호찌민 증권거래소에 공식 상장되었다. 올해, 안전한 해양 산업 구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첨단 현대식 조종석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갖춘 선원 훈련 센터(VTMC)에 투자해 주목받기도 하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운송 수요 감소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글로벌 해상 운송 분야에서 최고의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 현황 및 2024년 사업 계획(단위: 10억 동)>



출처: [VOSCO\(링크\)](#), [VietstockFinance\(링크\)](#)

## 주요기사

### SC은행 보고서,

#### 베트남 1분기 경제성장률 6.1% 전망...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1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6.1%로 전망했다. SC은행이 최근 내놓은 ‘베트남 경제 수정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기회복세 관측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분기 6.1%로 전년동기 3.32%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SC은행은 상하반기 경제성장률을 각각 6.2%, 6.9%로 제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6.7% 그대로 유지했다. SC은행의 1분기 전망치는 앞서 이달 중순 싱가포르의 대형 은행그룹 UOB가 제시한 5.5%보다 0.6%p 높은 수준이다. SC은행은 “3월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으며, 무역흑자는 8억 달러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입이 각각 5.2%, 5% 늘어나는 등 몇 이후 3월 경제지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SC은행은 “다만 최근 교육비와 주택비, 식품비 등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지며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기대비 4.2%, 전월대비 0.2%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 베트남, FDI 증가세 지속...

#### 3월까지 61.7억 달러 전년동기비 13% ↑

올들어 베트남의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28일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FDI 유치액은 61억 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이중 신규 FDI 프로젝트는 644건, 47억여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4%, 57.9% 증가했다. 이와 함께 3월 신규 FDI 프로젝트 건수와 투자 규모, 기존 프로젝트 증자 및 추가 투자와 자본출자 및 주식매입 등이 모두 1~2월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가 적어 총등록 자본은 전월대비 25% 감소했다. 올들어 3월까지 기존 프로젝트 증자 및 추가 투자는 24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 늘었으나 투자규모는 9억 3460만 달러로 22.6% 감소했다. 또 자본출자 및 주식매입은 604건, 4억 6620만 달러로 각각 14.1%, 61.7% 감소했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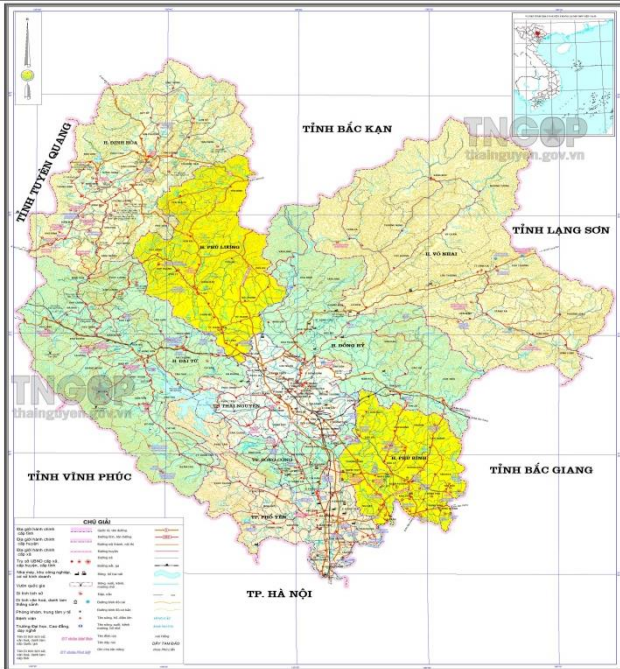
## 금융

### 베트남 주식시장,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베트남 주식 시장이 접근성, 수익 잠재력, 인구 통계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VN 다이렉트 증권은 주식 시장이 저축 예금, 부동산, 금과 같은 다른 투자처를 능가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과 비교하였을 때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주식 시장의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부동산 가격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의 31년 치에 해당하는 26억 7,000만 동(10만 5,000달러)으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반면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인구의 상당수(62.2%)가 노동 연령대에 속해 있으며 베트남 가구의 약 60%가 연간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등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투자 옵션으로서 주식 시장의 매력력이 더욱 높아졌다. 주식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6.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부동산 부문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베트남의 저금리 환경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도록 이끌고 있다. 한편, 드래곤 캐피탈에 따르면, 베트남의 상위 80대 상장기업들이 올해 전년 대비 평균 15~18%의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 시장에 자본이 계속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Vietnamnews\(링크\)](#)

## 타이응웬성

출처: [사진\(링크\)](#)

Region 2	Thai Nguyen, Song Cong, Pho Yen 시;
Region 3	Phu Binh, Phu Luong, Dong Hy, Dai Tu 현;
Region 4	그 외;

2024 년	최저임금(월급) (단위 : VND)		
Region 1	4,680,000	Region 3	3,640,000
Region 2	4,160,000	Region 4	3,250,000

### Quyet Thang 공단

면적: 200 ha

입지: 타이응웬시 30 km, 하노이 시내 55 km

주요 산업: 전기 및 전자 장비 생산, 첨단 산업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55-70 USD/m<sup>2</sup> (관리비 0.3 USD/m<sup>2</sup>)

전기료: 피크 시간대) 0.1 USD/ kWh

일반 시간대) 0.05 USD/ kWh

유희 시간대) 0.03 USD/ kWh

물 사용료: 0.4 USD/m<sup>3</sup>폐수 처리: 0.22 USD/m<sup>3</sup>출처: [Kland\(링크\)](#), [InvestVietnam\(링크\)](#)명 칭 : **Thái Nguyên**

GRDP : 5.56% (2023년 성장률)

타이응웬성은 하노이 수도권 권역에 위치하여 베트남 북부 산악지역 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이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박장성, 빈폭성과 인접해있어 베트남 북부에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 부동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타이응웬성은 2030년까지 북부산악지역의 산업경제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정 개혁, 투자 우대 정책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2021~2030년 타이응웬성 개발계획'에 따르면, 총 면적 4,245헥타르의 12개 산업단지와 2,067 헥타르에 달하는 41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계획 중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엔빈2, 엔빈3, 트영단, 띠이포엔 등을 확장 개발키로 했다. 한편, 타이응웬성은 지난 10년간 기업친화 및 투명한 정책, 전략적 입지성 등을 내세워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다수의 주요 FDI를 유치해왔다. 2030년에는 총 자본금 약 2억 5천 달러 이상의 41개의 FDI 프로젝트가 도입됐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베트남타이응웬(SEVT)이 2013년부터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통해 최대 투자자로 활약하고 있다.

출처: [타이응웬성\(링크\)](#), [인사이드비나\(링크\)](#), [Baothaniguyen\(링크\)](#)

### Song Cong II공단

면적: 250 ha

입지: 타이응웬시 12 km, Da Phuc 항구 20 km

주요 산업: 기계 가공, 자동차 제조 및 설치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85 USD/m<sup>2</sup> (관리비 0.35 USD/m<sup>2</sup>)

전기료: 피크 시간대) 0.1 USD/ kWh

일반 시간대) 0.05 USD/ kWh

유희 시간대) 0.03 USD/ kWh

물 사용료: 0.49 USD/m<sup>3</sup>폐수 처리: 0.45 USD/m<sup>3</sup>출처: [Kland\(링크\)](#), [InvestVietnam\(링크\)](#)

\*임대료 및 기타 요금에 관하여는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InvestVietnam)를 우선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나, 시세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SK에코플랜트

### SK에코플랜트,

#### 베트남에 700MW 태양광·풍력발전 구축 추진

SK에코플랜트가 베트남 신재생에너지회사 뱀부캐피탈에너지(BCGE, Bamboo Capital Group Energy)와 함께 700MW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구축한다. SK에코플랜트는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BCGE와 ‘베트남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 협력 및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CGE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현지에 약 6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풍력발전 규모도 800MW를 웃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베트남에서 육상풍력 300MW, 지붕태양광 300MW, 육상태양광 100MW 등 총 7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하게 된다. SK에코플랜트는 사업개발 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1년 베트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CDM은 온실가스 감축방안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실적만큼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베트남은 에너지 수요가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신흥국으로, 최근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우/[bhsjun@jplawvn.com](mailto:bhsjun@jplawvn.com) /070-7011-7366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mailto: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진출 연대기



SK에코플랜트는 SK건설에서 현 사명으로 변경하면서 현재 단순 건설사에 머물지 않고 친환경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인 ‘환경시설관리’,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테스’ 등을 인수했고 태양광·해상풍력·폐배터리·그린수소와 같은 친환경 사업 M&A에 3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부터 기자재 제조, EPC(설계·조달·시공)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환경·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신을 추진하며 지난 2022년 베트남 태양광 시장에 진출, 친환경 전력 생산과 탄소배출권 확보에 나섰다. 당시 현지 태양광기업인 나미솔라에너지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육상태양광발전단지 개발에 앞장섰다. 당시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프로그램 CDM 사업’으로 등록해 국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위치한 소각장에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진출을 기점으로 환경 사업의 본격적인 해외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SK에코플랜트\(링크\)](#), [조선비즈\(링크\)](#),  
[인사이드비나1\(링크\)](#), [인사이드비나2\(링크\)](#)